

세화리 오일장에 관한 연구

김 동 섭*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세화리 '오일장'의 특징
4. 결론

1. 서론

파는 물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시장(市場)이다. 이러한 시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오일장이 있었는가 하면 도심의 재래시장과 포구의 어시장, 항 장수처럼 일정 지역에 붙박이로 가마를 갖고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들 가운데 그 지역의 농산물(農産物)과 어산물(魚産物)을 중심으로 5일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 '오일장'이다. '오일장'은 닷새 만에 다시 서는 곳이라 하여 '닷새장'이라고도 불렸다. 사는 사람들의 사연도 많겠지만 '오일장'의 특징은 팔려는 물건의 다양함에 있을 것이다. 파는 사람들을 장꾼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오일장'마다 붙박이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변영회를 조직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도 있지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만) 그렇지 않은 장꾼들도 있다. 할머니 장터에 오는 할머니들도 있고, 필요에 의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돌아보기 시작한 ‘오일장’의 모습도 상당히 변했다. 열리지 않는 ‘오일장’의 수가 열리는 ‘오일장’의 수만큼이나 많아짐이 가장 큰 변화이고 큰길가를 중심으로 열렸던 장터의 모습이 지붕을 얹은 현대적 시설로 바뀐 모습이 그 다음으로 칠만한 변화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장이고 반드시 있었던 점보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도 변화한 모습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제주시, 중문, 서귀, 한림장, 세화장과는 달리, 아스팔트 포장을 한 도로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함덕, 성산, 대정, 표선, 고성장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에 동쪽에 위치한 구좌읍 관내의 세화리 ‘오일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1> 세화리 오일장

1) 金東燮, 『濟州道の 農機具』,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pp. 22

<표 1> 제주 '오일장' 현황

장 날	오늘날의 '오일장'	열리지 않는 '오일장'
1, 6일	함덕, 성산, 대정	하귀
2, 7일	제주, 표선	안덕, 신창
3, 8일	중문	조천, 신산, 남원, 애월
4, 9일	고성, 서귀, 한림	-
5, 0일	세화	고산, 남읍

<표 2> 1910년대 시장별 장날²⁾

구분	시장명	개시일	상호거리	
제주군	제주읍	2, 7	제주읍 삼양	15리
	삼양	1, 6	삼양 조천	2리
	조천	3, 8	조천 김녕	2리
	김녕	4, 9	김녕 별방	4리
	별방	5, 10	별방 고성	2리
정의군	고성	5, 10	고성 읍내	3리
	읍내	1, 6	읍내 의귀	3리
	의귀	2, 7	의귀 하효	3리
	하효	3, 8	하효 도순	3리
대정군	도순	4, 9	도순 창천	2리
	창천	5, 10	창천 읍내	3리
	읍내	1, 6	읍내 두모	4리
제주군	두모	5, 10	두모 명월	3리
	명월	4, 9	명월 애월	3리
	애월	3, 8	애월 제주	5리

제주 전래 '오일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수산지³⁾, 오성찬⁴⁾, 월간관

2)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찬, 『제주도』, 『한국수산지』(3), 조선총독부, 융희4년(1910). 392~393쪽.

3)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찬, 앞의 책. 392~393쪽.

광제주⁵⁾, 이기형⁶⁾, 김동섭⁷⁾의 것을 살필 수 있다. 한국수산지에서는 1910년경 제주에서 열렸던 '오일장'을 개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오성찬은 '오일장'의 기능을, 월간관광제주에서는 특집으로 닷새장을 다루었으며, 이기형은 오일장을 소개하였고, 김동섭은 파는 사람과 사자가 만나는 문화 복합체로 오일장을 살핀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오일장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한 정도로 개관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오일장'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일장'이 열리는 곳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시장의 운영 형태와 이용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들의 진솔한 증언을 나름의 기준으로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본고에서는 구좌읍 읍소재지인 세화리 '오일장'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005년 1월 15일 현지조사시 구좌읍사무소 현병열, 노인회장님의 도움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그리고 구좌읍 출신으로 조사의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용석님, 부정미님의 도움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2. 조사지 개관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35km에 위치한 구좌읍의 중심지 세화리는 마을면적이 17.66km²로서 남쪽은 송당리 동쪽은 하도리와 상도리 서쪽은 평대리와 접하고 있으며 제주 동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월랑봉(다랑쉬오름)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월랑봉은 우리나라에서 패러글라이딩

4) 오성찬, 상업,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3.

5) 월간관광제주사, 『제주도의 닷새장』, 『월간관광제주』(6월호), 1985.

6) 이기형, 『풍속도』, 한라일보사, 1990. 26~29쪽.

7) 김동섭, 제주의 '오일장', 제주투데이, 2004.

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로 국내외에 알려진 명소이기도 하다. 또한 바다에는 넓은 백사장이 있어 여름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으며 1종 항(港)인 세화항과 읍사무소가 소재하는 마을이다. 세화에서 시작되는 해안 도로를 따라 항구와 백사장 민속'오일장'이 있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 성산 일출봉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경치가 절경인 해안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단조로우나 서북쪽 평대리와 접하는 해변은 천연 포구(浦口)를 형성하여 일제시대부터 기선이 왕래하고 있으며, 북동쪽 해안은 모래사장을 이루어 하도리 연안과 접해 있다. 가장 먼저 이곳에 산 사람은 고씨였다고 하며 다음에 오씨, 양씨, 부씨, 김씨가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ㄴ은 곳'이라 불리는 곳 근처에 있는 숲이 많은 곳에 인가(人家)가 먼저 생기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9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남자 1180명, 여자 1216명 등 모두 2396명이며, 세대수는 795가구이다.

요사이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農水産物)은 다음과 같다.

- (1) 당근 : 7월경 파종, 12월~다음해 2월경 수확 식용으로 사용한다. 연평균생산량은 4,190톤에 이른다.
- (2) 더덕 : 주로 2월과 8월에 채취하여 말려 이용한다.
- (3) 콩 : 6~8월에 파종하여 10~11월에 수확하여 된장콩, 콩나물콩으로 사용한다. 연평균생산량은 32톤에 이른다.
- (4) 소라 : 소라는 일본에서 기호식품으로 전량수입해 가고 있다. 해녀들에 의해서만 채취되는데, 매달 15일간 물질하여 수확한다. 연평균생산량은 4톤에 이른다.
- (5) 톳 : 3~4월경 해녀들이 직접 손으로 채취하며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연평균생산량은 0.4톤에 이른다.
- (6) 우뭇가사리 : 5~7월경 채취하며 일본 수출하고 있다. 연평균생산량은 1톤에 이른다.

8) 아끈다랑쉬(작은 月郎峰)에서 지금의 세화리 남측까지 가느다랗게 뻗어있는 나무숲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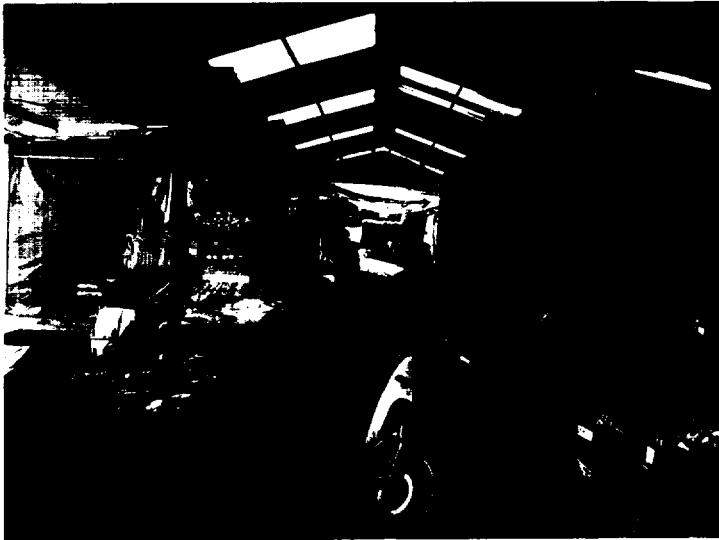
<사진 2> 농기구

3. 세화리 '오일장'의 특징

가. 장터의 변천

1912년 별방진내에 있었던 시장이 경찰관 주재소(駐在所)가 있는 세화리 전향동(앞거리)으로 이설되면서 처음에는 '오일장'이 2일 7일 개장되었다고 한다. '오일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로변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왕래하는 차마는 물론 사람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서 1927년에 는 현 세화중학교 입구로 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1945년에 다시 세화리 1517-1번지 일대 현 시장동으로 이설하여 운영되다가 1965년 1월 15일 정기시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용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때 '오일장'의 개설일도 2, 7일에서 5, 10일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래가 커지면서 다시 시장

의 이설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⁹⁾ 매일 열리는 재래시장과는 달리 5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개설 운영되면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현 구좌보건지소 근처로 이설하였다가 다시 1983년 9월 현재의 부지인 세화 매립지 해안도로 변으로 이설하였다.



<사진 3> 옛 모습

<표 5> 시장규모의 변화¹⁰⁾

구분	1964	1967	1971	1974	1999
시장부지	1970	947	947	5,653	8,921
집포수	30	30	30	64	73

세화 '오일장'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철골조 4동 938평과 화장실, 관리사무소 24평, 부대시설로 주차장, 도로포장, 우수처리시설, 쓰레기 집화장이 들어섰으며, 전기와 통신, 방송시

9) 노인회장의 증언이다.

10) 『구좌읍지』, 291쪽.

설이 기타시설로 갖추어졌다. 이러한 시설은 북제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조례 1798호)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점포세로 지불하고¹¹⁾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보리미술(보리미습): 세화초등학교 동측에 있었던 오일시장터인데 여기에 돌동산이 있었고 나무가 무성한 가운데 당도 있었다. 이 마을을 보위한다는 동산으로 이를 헐게 되면 마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전해진다. 보리미술이 없어지자 무당들과 일부 부녀자들이 수년간을 끌어오다 1984년에 충혼묘지 동쪽 200m 지점에 당을 복구했다. 특히 본리는 구좌면의 행정, 교육, 안보, 통신, 농협, 신용금고, 사회단체, 교회, 상거래, 기타 등 명실공히 구좌읍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동부 제주의 입지적 조건상 동남(고성)과 더불어 앞날에 발전여지가 있다. 세화리 발전의 계기로는 경제관세화주채소가 설치되고 이어서 오일시장이 옮겨왔고 의료기관인 부상규의원의 설치와 교회의 유치, 세화항에서 일본 대판 왕래의 군대환복목환 운항과 목포, 여수, 부산 항로(航路)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2)시장동: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에 오일시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여기 인가가 생기게 되니 시장동이라 했다.

나. 장터의 구조

생산물의 교환 현장이 장터였다. 이들 토속적인 생산물에 대한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80)에는 산도(山稻), 서(黍), 직(稷), 속(粟), 속(菽), 두(豆), 교맥(蕎麥), 맥(麥), 모(麴), 마(馬), 우(牛), 녹자, 진녹, 해뢰, 지뢰, 권, 보주, 대모, 패, 영조사, 감, 굴, 비, 유, 편자, 울, 무환자, 무회목, 산유자, 이년목, 거목, 두충, 태곡, 원박, 속실, 속근, 영능향, 안식향, 향부자, 청피, 해동피, 독저, 진피, 화등가, 팔각, 향단, 목의, 석각, 석종유, 백련, 염, 췌, 우모, 해, 누, 복, 석결명, 황흙, 해의, 도적어, 은구어, 옥두어, 작어, 도어, 고도어, 행어, 문어¹²⁾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11) 구좌읍사무소 현병열님의 증언이다.

또한 조선 말기까지의 풍속에는 해마다 동짓달에는 제주도의 특산품으로 조정에 진상을 바쳤었다. 진상물의 품목을 보면 산촌으로는 초기(비섯), 중산간촌으로는 고사리, 어래빚, 진피, 그리고 해각으로는 우무, 청각, 조각미역, 팽부, 고동, 생복, 따위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도의 진상물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일품으로 상감께서는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이러한 제주도의 특산품이 조정에 진상되면 궁중에서는 먼저 이것을 태묘(太廟)에 천신(薦神)하고 각 궁과 근시(近侍)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옛적 신라시대부터 탐라의 성주가 매년 굴, 유자 따위의 토산을 바칠 때에는 이를 경사(慶事)라 하여 축하하는 뜻에서 고려시대에는 이때를 기하여 과거를 보게 하였다는데, 이조에서는 이를 습용하여 태학과 사학(四學), 유생(儒生)을 시험하고서 감자(柑子)를 나누어주니 이 과(科)의 이름을 감제(柑製)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중의 감귤은 진상을 핑계로 관리들이 수탈하였던 예도 드물지 않을 뿐 아니라 굴나무의 그루 수를 세어 기적(起籍)하고 결실(結實)하기 시작하면 그 과실의 개수를 세어서 봉을 붙인 뒤 만약 그 감귤이 주민이 한 개라도 따먹는다면 절도죄로 다스렸던 것이니 당시의 민폐(民弊)가 많았음¹³⁾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 파는 물건과 사람

‘오일장’은 농산물(農產物)을 비롯해 수산물(水產物), 죽기(竹器), 목기(木器), 석기(石器), 불미왕의 다양한 생산품과 한약재 등 화산으로 만들어진 바다 한 가운데의 섬, 제주가 만들어주는 다양한 생산물(生產物)과 이들을 팔고 사러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문화의 공간이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공간이면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보고, 먹고, 듣는 곳이기도 했다. 분주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넘쳐난 사람과 구덕의 행렬이 차량으로 바뀐 만큼 ‘오일장’도 바뀌고 말았다.

12) 石甯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5~6쪽.

13) 秦聖麒, 앞의 책.



<사진 4> 잡곡

장꾼들의 분주함으로 시작하는 '오일장'의 새벽은 불박이 가게의 여닫는 셔터의 소리로 바뀌었다. 구성졌던 풍물패의 모습과 소리가 유명 가수들의 스피커 소리로 바뀌었다. 이 뿐만 아니라 쌀, 보리, 조, 콩, 팥 등의 곡물 시장이 중국의 것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생선, 고등어, 우럭 등의 어물 시장도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땃유자, 군병이, 지네 등을 파는 한약재까지도 수입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목청 높여 외치던 양은이나 스텐의 그릇을 파는 사람, 화분과 약탕기, 장독 등 용기를 파는 사람, 죽기, 목기, 석기 등을 만들어 파는 사람, 골갱이, 호미 등을 두드려 파는 사람들의 외침이 더 이상 메아리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일장'이나 재래시장이 중심이던 시대에 대형유통체인인 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기쁜 사람, 슬픈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했던 시간이며 공간이었던 '오일장'은 시끌벅적해야 제맛이 나는 곳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만큼이나 주름잡힌 얼굴들로 가득한 오늘날은 오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만으로 가득 채워질 뿐 잘 모르는 사람들의 고평으로 점점 소원해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 5> 야채전

보다 편리한 곳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름의 원리로 오늘날까지 지탱되어온 '오일장'의 미래가 우리의 무관심과 순간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유성을 잃게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보다 다양한 물건을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서 전통을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어제의 우리가 그랬듯이 다양한 사람의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곳이 재래의 '오일장'이었다면 우리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곳으로까지 만들었으면 한다. 딸기, 토마토는 물론 밀감, 사과, 배, 참외, 수박 등을 마음놓고 살 수 있고, 검은 도새기, 개, 닭, 오리, 고양이, 토끼, 염소 등 가축을 살 수 있으며, 빨국수, 냉국수, 고기국수, 순대와 머릿고기, 막걸리, '우미' 등의 다양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져서 시끌벅적하게 다시 번성하는 '오일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 사람들이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



<사진 6> 어물전

<표 3> 품목별 면적 비교

구분		면적(단위 : 평)		
품목	집포수	대	중	소
과일	8	4.91	4.74	
잡곡	7	2.95		
약초	4	4.36		
잡화 ¹⁴⁾	17	4.91	4.36	3.40
야채	29	5.81	5.08	4.36
육류 ¹⁵⁾	10	5.08		
식료		3.40	2.95	
죽세	3	13.37	13.22	
식당	3	13.37		
의류	27	7.74	7.19	4.40
이불	1	10.23		
분식 ¹⁶⁾	5	5.08	4.91	4.36
어물	29	2.54	2.18	1.91
신발	6	7.74	6.68	4.91
할머니장		1.09		

14) 잡화부는 다시 잡화, 종자, 철물, 과자로 세분하였다.

15) 식품부는 계란, 식료, 건어물, 육류로 세분하였다.

16) 분식부는 도너츠, 떡, 분식, 붕어빵으로 세분하였다.

라. 사는 사람들

근래에 와서 '오일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개장(開場) 때마다 평균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안도로변에 시장이 위치하여 세화 종달간 해안도로를 통과하는 관광객들까지 시장을 찾아 전통민속시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사진 7> 사는 사람

4. 결론

세화리 오일장은 바다와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바다였는데 매립하여 만든 위치라고 한다. 이곳에 위치하기까지는 5번의 이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필 수 있다. 일제시대 제주도 동쪽 구좌지역의

행정중심지로 자리하면서 시장이 옮겨 오게 되면서 전향동, 중학교 자리, 시장동, 보건소 자리를 거쳤다가 오늘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세화 시장의 형태도 2003년부터 시작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 기둥에 슬레이트와 함석으로 지붕을 씌운 형태에서 철골구조의 모습으로 4동이 만들어졌으며 바닥도 자갈을 깐 형태에서 시멘트로 마감을 하였다. 필요한 화장실, 관리실 및 쓰레기 집하장 등이 갖추어졌다. 처음 개장될 때는 2, 7일 열리는 오일장이었으나 1960년대 오늘날과 같이 5, 10일로 서는 바뀌어 열리게 되었음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예전의 30곳의 두 배가 넘는 수가 자리하고 있다. 잡곡과 약초, 잡화와 과일 야채, 어류와 육류, 죽세공과 공산품, 분식과 식당, 의류와 이불점, 신발점, 그리고 할머니장터가 마련되어 있어 찾는 이를 기다리는 곳이다. 예전과는 달리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찾고 있으며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까지도 이용하고 있어 새로운 모색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음도 다른 지역의 오일장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물건을 통해 만나는 곳이 오일장이다. 더군다나 파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이 구분되는 분업의 사회 이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삶의 공간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전해지고 있는 제주 고유문화의 생산지이기도 한 곳이다.